

사춘기 자녀에 관한 부모의 이야기: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네이버 카페 게시물 분석*

Parent's Stories about Puberty: An Analysis of Naver Cafe Posts using Topic Modeling

1차원고접수: 2023.10.04. 수정원고접수: 2023.11.19. 최종게재결정: 2023.12.13.

김대웅¹ · 박하연² · 이강이³

¹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²덕성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아동·가족상담전공, 겸임교수

³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Kim, Daewoong¹

Park, hayeon²

Lee, Kangyi³

¹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²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 Industry, Major in Counseling for Children and Family, Duksung Women's University

³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사춘기 자녀 양육에 관한 네이버 카페 게시물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설문이나 면담이 밝히지 못한 사춘기 자녀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다. 2018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네이버 카페에 작성된 사춘기 자녀에 관한 게시물 160,074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빈도분석, 워드 클라우드,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춘기 자녀에 관한 게시물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가족 구성원 관련 단어, 사춘기 시기 관련 단어, 그 외로 말, 생각, 공부 등이었다. 둘째, 사춘기 자녀에 관한 게시물은 17개의 주제를 담고 있었으며, 크게 다섯 가지 대주제로 구분될 수 있었다. 다섯 가지 대주제는 자녀의 사춘기 맞이, 생물학적 변화 이해, 학업에 대한 고민, 사춘기 자녀와 지내는 어려움과 위기, 부모로서의 성장과 극복이었다. 셋째, 부모-자녀 관계와 성장에 관한 내용은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춘기 자녀에 관한 정보 공유나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성장 사례의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사춘기, 양육, 워드 클라우드, 토픽 모델링, 네이버 카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ent of Naver Cafe posts related to parenting puberty children. We aim to uncover narratives regarding adolescent child-rearing that may not have been elucidated through surveys or interviews. The analysis focused on 160,074 posts related to adolescent written on Naver Cafe from April 1, 2018, to March 31, 2023. Frequency analysis, word clouds, and topic modeling were used. The analysis yield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frequently appearing words in posts about adolescent children included words related to family members, words related to the adolescent stage, and other words such as speech, thoughts, and studies. Second, posts about puberty encompassed 17 different topics, which could be broadly categorized into five main topics. These five main topics were preparing for a child's adolescent year, understanding biological changes, concerns related to academics, challenges and crises, and parental growth and resilience. Third,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growth topics showed a decreasing tren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not only sharing information and emotional support, but also efforts to promote the sharing of growth experiences.

Keywords puberty, parenting, word cloud, topic modeling, Naver Caf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이 사춘기에 겪는 변화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양육자에게도 낯선 경험이다. 양육자가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양육하는지에 따라 이후의 청소년

발달과 부모-자녀 관계의 양상은 달라진다. 선행연구(박현진, 김동민, 2010)는 자녀의 변화에 대한 부모의 노력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의 친밀감과 신뢰감이 형성되고, 관계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밝혔다.

청소년은 사춘기를 거치며 신체, 인지,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고, 부모는 사춘기 자녀의 변화에 혼란을 느낀다(박현정, 김휘경, 2022). 자녀가 올바른 길로 성장

* 이 논문은 2023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Corresponding to 박하연 (Park, hayeon)

덕성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아동·가족상담전공, 겸임교수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 Industry, Major in Counseling for Children and Family, Duksung Women's University) E-mail: hayeon@duksung.ac.kr

Copyright ©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노력은 때때로 부모의 통제로 여겨지고, 부모-자녀 갈등의 증가로 이어지기도 한다(정명숙, 김혜리, 2005). 양육자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고민하며, 때로는 권위를 내세워 자녀와 관계를 맺기도 한다(박현정, 김휘경, 2022).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드는 것은 양육자에게는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사춘기 자녀와 부모의 상호작용은 청소년, 양육자, 가족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역동이 변화한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사춘기 자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변화하고(Suleiman & Dahl, 2019), 부모-자녀 관계가 변화하는 것이다(권상인, 양지웅, 2019). 강버들(2020)이 제안한 사춘기 자녀 양육 단계는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 경험은 일상, 갈등, 극복, 도약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자-아동의 관계가 정적이지 않으며,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그 관계도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에 중요한 하나의 축은 바로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사춘기 자녀의 건강한 발달이나 부모-자녀 관계의 개선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는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 증가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의 긴장과 갈등이 증가한다고 제시하였다(최정아, 이재림, 김영선, 2021). 비슷한 맥락에서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일상에서 다양한 갈등 상황을 마주하게 되며, 그러한 문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강버들, 2020).

한국 사회에서 부모는 자녀를 위한 집중적 역할(intensive parenting)을 요구하는 관점과 함께(Hays, 1996), 독립된 인간으로서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는 관점을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자녀 양육에 관한 학술적 논의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춘기 양육에 관한 어머니 관련 선행연구(최정아 등, 2021)는 자녀 중심의 조력자나 양육자

로서 어머니를 바라보는 연구, 반대로 여성 개인으로서 어머니를 바라보는 연구로 구분 지을 수 있었지만, 현실의 부모는 위 두 가지 흐름 중 하나만 선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어머니의 양육을 현실감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양육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양육 실천자 관점에서 사춘기 자녀에 관한 부모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는 주체는 아동의 발달을 돕는 조력자이자, 동시에 독립된 한 명의 개체임을 의미한다. 즉 양육자는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양육 실천자 관점에서 사춘기 자녀에 관한 부모의 경험을 현실감 있게 다루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이 유용할 수 있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자녀 양육에 관한 의견공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Lundin, 2020).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는 한국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담론의 장으로서 기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라인상에서 게시물의 성격은 그 게시물이 작성된 매체 혹은 채널이 무엇인지에 따라 상이한데(조주연, 김현숙, 조민제, 2018),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 공유나 정서적 지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김은경, 2019; 박하연, 이재림, 이강이, 2021; 왕혜숙, 송민이, 2021). 이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부모의 솔직한 마음이 드러나는 담론의 공간이자, 설문지나 면담 등에서 발견할 수 없던 풍부한 사실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특·장점을 근거로 하여(김청택, 2019),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춘기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게시물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녀 양육은 부모-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는 양육자의 일상과 가정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자녀의 온라인 개학과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가정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자연스레 자녀 식사와 돌봄, 학업 등을 챙기는 부담이 커지면서 양육자의 일상을 유지하고 직장 일을 병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양육자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자녀의 변화에 적응하

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는 동안 높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자녀와의 갈등이 깊어졌음을 밝혔다(석소원, 김서현, 2022). 또한 팬데믹 시기에 성조숙증과 같이 자녀가 또래에 비해 매우 이른 시기에 2차 성징을 하고 조숙을 경험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박소희, 2022; Prosperi & Chiarelli, 2023). 조숙을 겪는 청소년은 불안과 우울,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데(박하연, 은선민, 박유경, 이강이, 2022; Graber, 2013; Zimmer-Gembeck, Webb, Farrell, & Waters, 2018), 이때 양육자도 자녀의 이른 신체적 변화로 인해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때로는 의료적 개입을 통해 사춘기를 늦추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López-Miralles, Lacomba-Trejo, Valero-Moreno, Benavides, & Perez-Marin, 2022; Schoelwer et al., 2015). 이렇듯 새롭게 직면한 사춘기 이슈를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양육자에게 다방면의 정보와 심리적 지지가 필요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정보 탐색과 소통의 주요 통로로 기능했으리라 짐작을 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코로나로 인한 사춘기 자녀 양육에서의 변화와 그 실천 과정은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기존의 연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기간에 사춘기 자녀 양육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코로나 이전의 양육에 관한 연구는 회고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활용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작성된 자연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코로나 전, 후 양육에 관한 부모의 이야기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대면 상호작용이 제한적이었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양육 경험의 공유와 사회적 교류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양육 실천자 관점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사춘기 자녀의 양육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양육 경험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봄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온전한 일상 회복과 적응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도유록, 2023).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사춘기 자녀의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게시물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빈도분석과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사춘기 양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게시물 내용의 주제를 구분 짓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사춘기 자녀 양육에 관한 네이버 카페 게시물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사춘기 자녀 양육에 관한 네이버 카페 게시물과 단어 분포를 통해 도출된 주제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사춘기 자녀 양육에 관한 네이버 카페 게시물 주제의 비율 변화는 코로나19 시기에 다른 특징을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자녀의 사춘기 혹은 사춘기 자녀에 관한 네이버 카페 게시물이다.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를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검색엔진 점유율 1위인 네이버의 카페 게시물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인터넷 트렌드, 2023). 분석 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정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하였던 2020년 중반 이후부터 2022년 중반까지를 포함하기 위함이었으며, 추가로 이 시기의 전과 후를 함께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사춘기에 관한 양육자의 게시물을 수합하기 위하여,

‘사춘기’를 포함하는 문서 중에서 ‘딸’, ‘아들’, ‘자녀’, ‘아이’, ‘애’ 중 하나를 포함하는 문서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 문서 중에서 자녀 양육과 관계되지 않는 단어나 광고성 단어가 포함된 문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제외 목록은 ‘볼빨간사춘기’, ‘볼빨간 사춘기’, ‘안지영’, ‘사춘기메들리’, ‘사춘기 메들리’, ‘수학사춘기’, ‘수학 사춘기’, ‘나의 영어 사춘기’, ‘나의영어 사춘기’, ‘나의 영어사춘기’, ‘나의영어사춘기’, ‘중성화’, ‘산란’, ‘엽새품’, ‘삼품명’, ‘판배자’, ‘서평단’, ‘지원센터Q’, ‘케리상’, ‘다마고치’이다. 이러한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는 사춘기에 관한 양육자의 게시물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최종 분석 문건의 수는 160,074건이었다.

2. 자료수집과 전처리

이 연구는 네이버 카페 게시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텍스트롬(www.textom.co.kr)을 활용하였다. 텍스트롬은 검색 단위를 일, 주, 월, 년 단위로 제공하며, 설정한 검색 단위를 기준으로 최대 1,000건의 문서를 수집한다. 이 연구는 2018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검색 단위를 1개월로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원자료의 전처리는 1차로 텍스트롬에서 제공하는 Espresso K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고유명사, 복합명사를 그대로 결과값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원문에서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단어는 연결된 채로 나온다. 2차로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부분을 연구자가 확인하여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삼푸’와 ‘삼푸’를 ‘삼푸’로, ‘딸램’과 ‘딸래미’를 ‘딸래미’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같은 단어의 다른 표현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3. 분석방법

첫 번째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워드클라우드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토픽 모델링을 시행하였다. 주제의 분포 추론은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을 활용하였다(Blei, Ng, & Jordan, 2003). 토픽 모델링의 토픽

개수를 정하기 위하여 통계적 수치와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였다(Jacobs & Tschotschel, 2019). 통계적 수치는 R의 ldatuning 패키지 FindTopicsNumber 함수가 제공하는 네 개의 수치를 확인하였다(Arun, Suresh, Veni Madhava, & Murty, 2010; Cao, Xia, Li, Zhang, & Tang, 2009; Deveaud, Sanjuan, & Bellot, 2014; Griffiths & Steyvers, 2004).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연도별 빈도와 비율을 확인하였다. 토픽 모델링의 시기적 변화를 분석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시기를 구분하여 각각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시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 시기를 분석한 뒤에 시기별 주제 비율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코로나 전과 후의 데이터를 각각 따로 분석할 경우, 전과 후의 주제가 서로 다르게 도출되기 때문에 비교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후자의 방법으로 전체 시기를 한 번에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R(4.2.3 버전)을 활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사춘기 자녀 양육에 관한 게시물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사춘기에 관한 네이버 카페 게시물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다음과 같다. 검색어였던 ‘사춘기’, ‘딸’, ‘아들’, ‘자녀’, ‘아이’, ‘애’는 제외하고 단어를 살펴보았다. 등장 빈도가 높은 10개 단어와 그 빈도를 살펴보면, 엄마(23,005개), 중(19,475개), 딸(16,534개), 초(12,175개), 생각(12,032개), 부모(11,843개), 공부(11,754개), 요즘(11,274개), 오늘(10,484개), 아빠(10,392개) 순이었다. 초는 초등학생이나 초등학교, 중은 중학생이나 중학교의 줄임말이다. 즉 약 문서 일곱 개 중 한 개는 ‘엄마’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상위 빈도 단어를 구분 지어서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과 관련 있는 ‘엄마’, ‘부모’, ‘아빠’, ‘남편’ 등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춘기 시기와 관련



그림 1. 사춘기 게시물의 워드 클라우드

있는 ‘중’, ‘초’, ‘학년’ 등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로 ‘말’, ‘생각’, ‘공부’ 등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였다. 이는 사춘기 게시물에 가족 구성원, 사춘기 시기에 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의 어려움이나 학업에 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 등장한 단어 50개를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2. 사춘기 자녀 양육에 관한 게시물을 구성하는 주제

1) 주제의 개수

주제의 개수를 정하기 위하여 주제 개수별 네 개의 통계적 수치를 살펴보았다. 전체 문서의 양이 약 16만 개로 많은 양이었기에 분석을 위한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어려움과 일부 분석환경에서는 연산이 되지 않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연구는 3,000개의 문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통계적 값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전체 문서와 3,000개 표본 문서 간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 차례 더 표본을 추출하여 통계적 수치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분석 결과, 값이 낮을수록 이상적인 CaoJuan2009는 주제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주제의 개수가 18개에서 22개로 변함에 따라 값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값이 클수록 이

상적인 Deveaud2014는 주제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주제의 개수가 14개 이상이 됨에 따라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Arun2010과 Griffiths2004는 주제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종합하면, 주제의 개수가 14개 이상 22개 이하일 때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전체 문서와 표본 간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 차례 더 표본을 추출하여 통계적 수치를 확인하였고, 이는 첫 번째 분석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주제의 개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14개부터 22개까지의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를 각각 확인하고, 각 결과의 해석 가능성과 학문적 함의를 고려하였다. 하나의 주제로 포함된 단어지만 이질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지, 서로 다른 주제로 구분되었지만 포함된 단어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지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주제의 개수가 17개일 때 각 주제가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이 상대적으로 유사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주제가 원문에 잘 드러난다고 판단하였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네 개의 통계적 수치, 해석 가능성, 그리고 학문적 함의를 고려하여 주제의 개수를 17개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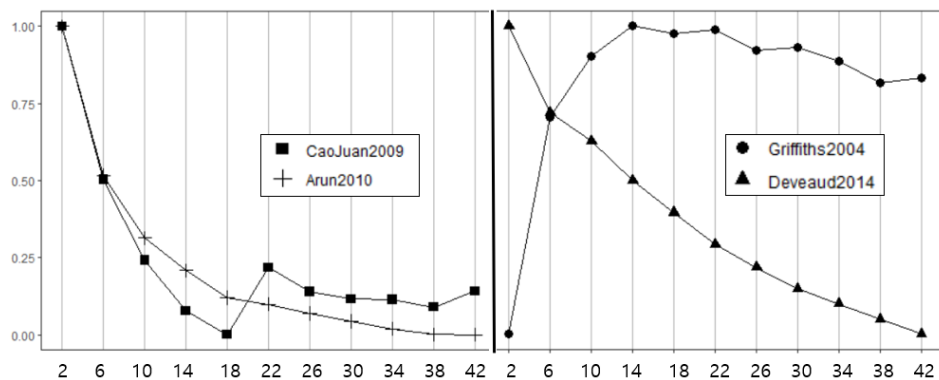


그림 2. 주제 개수별 CaoJuan2009, Arun2010, Griffiths2004, Deveaud2014의 값

2) 주제의 명명

주제 개수를 17개로 결정한 뒤, 각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주제어를 찾아 명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제별 등장 확률이 높은 상위 단어 20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주제의 비율이 높은 문서의 원문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주제 1에 등장할 확률이 높은 단어는 ‘딸’, ‘아빠’, ‘요즘’, ‘진짜’, ‘짜증’, ‘정말’, ‘매일’, ‘소리’, ‘잔소리’, ‘원래’ 순이었다. 그리고 주제 1 비율이 가장 높은 원문의 본문은 “제목그대로 아예 딸은 안들어요 / 안들리는지 경고도 가볍게 무시하고 / 대답듣기 하늘의 “별따기네요” / 원래 이런가요? / 진짜 소리 안지르

고싶는데 소리 안 지르면 아예 들어먹질 않아요 / 아 요즘 진짜 등짝스메싱 각이예요 후” 였다. 주요 단어와 본문을 통해 볼 때, 주제 1은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겪는 어려움에 관한 주제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 연구는 주제 1을 ‘양육 스트레스’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제 1부터 주제 17까지 명명하고, 비슷한 주제별로 군집화하였다.

다음으로, 17개 주제를 살펴보고, 이를 묶을 수 있는 대주제를 도출하였다. 각각의 주제를 대주제로 묶음으로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사춘기에 관한 이야기를 간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

표 1.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주제	주요 단어	주제	대주제
11	오늘, 남편, 아침, 어제, 여행, 저녁, 주말, 신랑, 날, 밥	가족과의 일상	
12	사춘기, 이제, 요즘, 시작, 정말, 무엇, 사이, 동생, 본인, 저	사춘기 시작	자녀의 사춘기 맞이하기
13	애, 사춘기, 맘, 한번, 번, 어디, 하루, 언니, 중딩, 큰아들	사춘기 시기	
14	아들, 사춘기, 사진, 생일, 선물, 눈, 언니, 중딩, 큰아들, 녀석	기념일	
2	아이, 사춘기, 때문에, 처음, 스트레스, 약, 남자, 몸, 운동, 건강	자녀 건강	자녀의 생물학적 변화 이해하기
10	초, 시작, 키, 성장, 정도, 개월, 병원, 치료, 검사, 증상	2차 성장과 조숙	
5	사춘기, 여드름, 추천, 머리, 피부, 얼굴, 중학생, 샴푸, 사용, 냄새	사춘기 피부관리	
3	아이, 친구, 학교, 걱정, 코로나, 선생님, 문제, 편, 애기, 사춘기	학교 적응	자녀의 학업에 대한 고민
15	공부, 학년, 중, 학원, 초등, 중학교, 초등학교, 수학, 수업, 숙제	자녀 학업	
9	고민, 글, 안녕, 조언, 상담, 내용, 카페, 자녀, 성격, 교육	양육 고민	사춘기 자녀와 지내는 어려움과 위기
8	중, 집, 시간, 혼자, 방, 게임, 다른, 입, 병, 큰애	의사소통 단절	
1	딸, 아빠, 요즘, 진짜, 짜증, 정말, 매일, 소리, 잔소리, 원래	양육 스트레스	
6	딸, 엄마, 사춘기, 감사, 갱년기, 원, 딸아이, 미안, 누구, 눈물	사춘기와 갱년기	부모로서의 성장과 극복
7	자녀, 부모, 대한, 청소년, 관계, 시기, 필요, 감정, 방법, 중요	부모자녀 관계	
16	아이, 사춘기, 마음, 책, 이야기, 대화, 생각, 조금, 서평, 이해	의사소통 노력	
17	사춘기, 생각, 우리, 지금, 나이, 이렇게, 앞, 모습, 그때, 반항	사춘기 회상	
4	사랑, 사람, 가족, 시절, 모두, 사실, 자신, 소녀, 아버지, 어른	성장	

었다(박윤현, 김대웅, 2023; 박하연 등, 2021). 17개의 주제는 5개의 대주제로 묶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첫 번째 대주제를 자녀의 사춘기 맞이하기, 두 번째 대주제를 자녀의 생물학적 변화 이해하기, 세 번째 대주제를 자녀의 학업에 대한 고민, 네 번째 대주제를 사춘기 자녀와 지내는 어려움과 위기, 다섯 번째 대주제를 부모로서의 성장과 극복으로 명명하였다. 17개 주제의 주요 단어 10개, 주제와 대주제 명명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3. 각 주제 비율의 연도별 변화

사춘기에 관한 네이버 카페 게시물의 주제 1부터 주제 17까지 비율은 각각 10.30%, 6.21%, 6.65%, 7.33%, 6.93%, 5.68%, 7.63%, 6.07%, 4.81%, 6.27%, 7.69%, 3.43%, 3.86%, 4.31%, 6.19%, 3.83%, 2.79%였다. 주제 1 양육 스트레스(10.3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대주제별로 살펴보면 가장 비율이 높은 대주제는 사춘기 자녀와 지내는 어려움과 위기(26.87%)였으며, 다음으로 부모로서의 성장과 극복(21.59%), 자녀의 생물학적 변화 이해하기(19.42%), 자녀의 사춘기 맞이하기(19.29%), 자녀의 학업에 대한 고민(12.84%) 순이었다.

다음으로, 대주제의 연도별 변화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는 그림 3과 같다. 자녀의 사춘기 맞이에 관한 내용

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 17.41%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에는 22.32%를 차지하였다. 반면, 부모로서의 성장과 극복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 29.7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주제였으나, 점차 그 비율이 낮아져서 2023년에는 19.08%를 차지하였다.

자녀의 학업에 대한 고민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8년 10.56%를 시작으로 2019년 12.29%, 2020년 12.18%, 2021년 13.63%, 2022년 14.14%까지 증가하였으며, 2023년은 12.27%로 감소하였다. 다만, 2023년은 3월까지의 결과를 취합한 것으로 학기 말, 방학, 수능 등이 가까워짐에 따라 논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자녀의 생물학적 변화에 관한 글은 코로나 시기에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자녀의 생물학적 변화에 관한 글은 2018년 18.52%, 2019년 17.43%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0.54%, 20.82%로 20%를 상회하였다. 2022년과 2023년은 다시 20% 이하로 감소한 모습을 보여, 이 주제가 코로나 시기에 자주 이야기된 주제임을 알 수 있었다. 세부 주제를 살펴보면, ‘2차 성장과 조숙’ 및 ‘사춘기 피부관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시기에 자녀의 생물학적 변화에 관한 논의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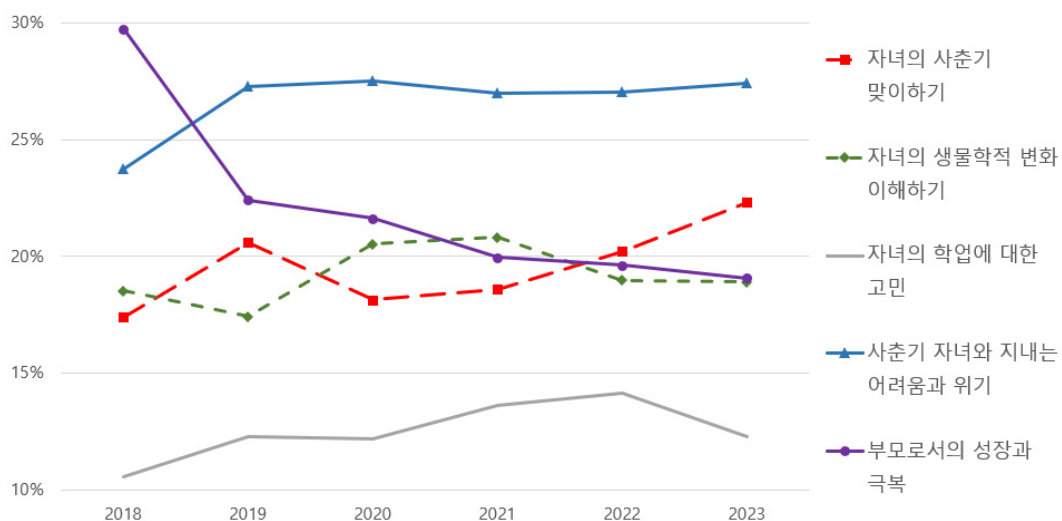


그림 3. 각 주제 비율의 연도별 변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주제는 사춘기 자녀와 지내는 어려움과 위기였다. 2018년을 제외하고는 연도별 비율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매년 약 27%를 차지하였다. 이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로 자녀와 지내는 어려움과 위기에 대한 글을 가장 많이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작성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8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작성된 네이버 카페 게시물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춘기 관련 게시물은 ‘가족 구성원’, ‘시기’, ‘갈등’, ‘학업’에 관한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사춘기 자녀의 주 양육자라 할 수 있는 ‘엄마’, ‘아빠’, ‘부모’가 자주 등장하였으며, 사춘기 시기와 관련 있는 ‘초’와 ‘중’이 자주 등장하였다. 초는 초등학생이나 초등학교, 중은 중학생이나 중학교의 줄임말이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 ‘자녀의 생각을 읽기 어려워하는 부모’, ‘자녀 학업에 관한 부모의 걱정’과 관련한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춘기 시기 청소년-부모 간 갈등을 보여주는 결과이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업이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는 대학입시를 위한 본격적인 학습 경쟁이 가속화되는 시점으로서 학구열이 높은 한국 사회를 고려했을 때 학업 관련 단어가 비교적 높은 빈도로 등장한 것은 개연성을 가진다. 사춘기와 중 2병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한 선행연구 역시 ‘학업’과 ‘대입 전형’ 등이 고빈도 단어로 산출되었음을 보고하였다(황매향, 여태철, 임현정, 김종민, 2022). 그럼에도 다른 발달단계보다 더 잦은 혼란과 긴장을 느

끼는 사춘기에는 양육자가 표현하는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감이나 지원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갈등의 원인이자 공감대 형성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이양희, 조혜영, 2019). 이는 양육자가 사춘기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 학업 수행의 측면만이 아니라 자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연구에서 도출된 사춘기 자녀 관련 게시물의 주제에서 ‘자녀의 학업에 대한 고민’ 대주제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를 거치며 사춘기 자녀의 학습 공백과 학업 지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현실적 맥락을 반영하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학교 적응’ 주제의 주요 단어에 코로나가 포함되어 있고, ‘자녀의 학업에 대한 고민’ 대주제가 코로나 시기 동안 증가하였다가 최근 들어 감소한 양상에서도 드러난다. 양육자는 코로나19 시기에 대면 대신 비대면 수업을,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교실이나 학원의 휴원 등을 겪었다. 이와 동시에 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고 보충하는 주된 역할을 하였다(김영선, 이재림, 최정아, 2021). 즉 학습 결손이나 교육 격차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과 지침 마련이 충분하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단어 빈도의 변화를 추적하는 작업을 통해 더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사춘기 관련 게시물의 주제는 총 17개로 구분될 수 있으며, 크게 다섯 가지 대주제로 구분될 수 있다. 자녀의 사춘기 맞이하기, 자녀의 생물학적 변화 이해하기, 자녀의 학업에 대한 고민, 사춘기 자녀와 지내는 어려움과 위기, 부모로서의 성장과 극복이 그것이다. 이는 양육자가 사춘기 자녀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전환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권상인, 양지웅, 2019).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여성 개인에 집중하는 관점뿐만 아니라(강버들, 2020), 양육자가 자신의 사춘기 시절을 되돌아보고, 자녀의 변화를 이해하며, 부모-자녀 관계를 발전시켜가

는 양육의 실천자로서 변화와 적응을 보였다는 합의가 있다(최정아 등, 2021).

또한 이러한 대주제의 발견은 사춘기가 자녀의 생물학적 변화와 사회적, 환경적 수준의 영향과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학제간 주제이자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Susman, Marceau, Dockray, & Ram, 2019). 이들은 현재까지도 사춘기에 관한 연구가 발달 시기, 속도와 순서 등에 주목함에 따라 신경생리학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에 동반되는 가족 수준의 변화와 이를 살펴보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이 부족함을 지적한다. 즉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로 인해 사춘기 자녀와 양육자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활용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춘기 양육 관련 데이터는 사춘기 동안의 복잡한 가족생활 변화를 포착하는 유용한 정보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사춘기 관련 게시물의 각 주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며, 특정 주제는 코로나 시기에 담론이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부모로서의 성장과 극복에 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녀의 사춘기 맞이에 관한 내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유행기에는 자녀의 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비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양육 과정에서 겪는 부모의 성장 경험과 자녀 양육을 위한 방법에 관한 논의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양육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사춘기 자녀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자신의 성장 경험이나 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이 지속된다면, 2023년과 2024년에는 부모로서의 성장과 극복에 관한 이야기 비중이 더욱 감소할 것이라 예측된다. 선행연구(심혜원, 한영주, 채선기, 이정호, 이사라, 2021)는 사춘기 자녀를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 의사소통 기술

교육이나 역할훈련과 같은 단편적 개입은 그 효과에 한계를 갖는 반면, 부모의 개인적 성장과 중년 전환기에 대한 성찰이 포함될 때 효과가 극대화됨을 지적하였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양육자들이 자신의 성장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반면, 자녀의 사춘기 맞이에 관한 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 게시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양육자와 자녀는 갑작스러운 친밀감의 감소와 긴장감의 증가를 경험한다.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청소년기로의 완전한 전환은 양육자에게 스트레스와 불안감, 통제력의 감소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양육자는 지지와 정보를 얻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교류가 제한될 때 온라인 커뮤니티는 양육자에게 감정적 지지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작용하였다. 즉 ‘자녀의 사춘기 맞이하기’ 관련 게시물의 증가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양육 스트레스의 해소와 사회적 지지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모습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네이버 카페로 대표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양육에 관한 정보 교환의 장소, 사회적 의사소통의 장소로 더욱 활발하게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연결성이 더욱 일상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자녀의 사춘기 맞이에 관한 주제는 더욱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사춘기 자녀의 양육 전략과 지원, 가족정책 등에 대한 논의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유행시기 전, 후로 ‘2차 성징과 조숙’에 관한 주제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코로나 이후 성조숙증 진단 사례의 급증과 맥락을 같이한다(박소희, 2022). 조숙은 부정적인 신체상의 발달, 내면화 문제와 비행 행동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위험 요인으로 인식된다(Graber, 2013; Negriff, Susman, & Trickett, 2011). 이는 양육자

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며, 이는 해당 주제의 주요 단어가 치료적 개입과 연관된 점을 토대로도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는 조숙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사례의 공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정된 정보에 접근하면서 양육자의 걱정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우려가 존재한다. 조숙의 이슈가 코로나 시기에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를 계기로 보다 전문적인 개입과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춘기 자녀에 대해 언급하는 양육자의 이야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상, 글의 작성자가 사춘기 자녀의 양육자인지 명확히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양육자가 작성한 글만을 추출하기 위하여 '딸', '아들' 등의 단어를 함께 포함하는 문서를 수집하였으나 이 역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양육자가 작성한 글을 선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사춘기 자녀 양육이 갈등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성장 경험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함의가 있다. 그리고, 사춘기 자녀 양육을 통한 부모의 성장 담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버들 (2020). 모가 경험하는 사춘기 자녀 양육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성인계속교육연구*, 11(4), 101-120.
<https://doi.org/10.20512/kjace.2020.11.4.101>
- 권상인, 양지웅 (2019). 어머니의 사춘기 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5), 143-166.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5.143>
- 김영선, 이재림, 최정아 (2021).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경험. *인간발달연구*, 28(3), 139-165.
<https://doi.org/10.15284/kjhd.2021.28.3.139>
- 김은경 (2019). 사춘기 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질적연구: 학습의 관점에서. 2019년 한국질적탐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19-294.
- 김정택 (2019). 빅데이터를 이용한 심리학 연구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4), 519-548.
<https://doi.org/10.22257/kjp.2019.12.38.4.519>
- 도유록 (2023). 코로나 19 확산기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의 돌봄 관련 토픽의 점유율 변화: 가족생활주기별 구분. *가정과삶의질연구*, 41(1), 29-47.
<https://doi.org/10.7466/JFBL.2023.41.1.29>
- 박소희 (2022. 10. 16). 코로나19이후 ‘성조숙증’ 급증..“무분별 치료 점검해야”. MBC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17376_35673.html에서 2022년 10월 16일 인출
- 박윤현, 김대웅 (2023). 에듀테크: 뉴스 기사 토픽모델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8(4), 139-158.
<https://doi.org/10.20437.KOAECE28-4-06>
- 박하연, 은선민, 박유경, 이강이 (2022). 학령기 여아의 성숙 시기가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자아상과 어머니 일상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육아정책연구*, 16(2), 183-207.
<https://doi.org/10.5718/kcep.2022.16.2.183>
- 박하연, 이재림, 이강이 (2021). 육아와 조부모: 온라인 카페 게시물 토픽모델 분석. *가정과삶의질연구*, 39(2), 91-108.
<https://doi.org/10.7466/JFBL.2021.39.2.91>
- 박현정, 김휘경 (2022). 사춘기 자녀와 대화에 관한 부모의 인식 연구: Q방법론 활용. *주관성 연구*, 61, 23-43.
<https://doi.org/10.18346/KSSSS.61.2>
- 박현진, 김동민 (2010). 탈비행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변화 과정. *한국청소년연구*, 21(1), 91-121.
- 석소원, 김서현 (2022).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여성의 양육환경 인식. *사회과학연구*, 33(4), 185-15.
<https://doi.org/10.16881/jss.2022.10.33.4.185>
- 심혜원, 한영주, 채선기, 이정호, 이사라 (2021). 사춘기 자녀를 둔 중년여성의 정체감과 부모효능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청소년학연구*, 28(9), 69-88. <https://doi.org/10.21509/KJYS.2021.09.28.9.69>
- 왕혜숙, 송민이 (2021). 모성의 의료화: 맘카페의 모유수유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4(3), 213-245.
<https://doi.org/10.17207/jstc.2021.9.24.3.7>
- 이양희, 조혜영 (2019). 중학생의 진로탐색과 부모의 진로지지를 둘러싼 부모-자녀 상호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미래교육학연구*, 32(3), 1-29.

- <https://doi.org/10.35283/erft.2019.32.3.1>
- 인터넷트렌드 (2023. 11. 20). 국내 검색엔진 순위. <http://www.internettrend.co.kr/>에서 2023년 11월 20일 인출
- 정명숙, 김혜리 (2005). 삶에 대한 가치관과 청소년의 일상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세대 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115-135.
- 조주연, 김현숙, 조민제 (2018).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청소년 문제의 이슈 변화 분석. *교육혁신연구*, 28(4), 461-487. <http://doi.org/10.21024/pnuedi.28.4.201812.461>
- 최정아, 이재림, 김영선 (2021). 초기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실천과 모-자녀관계의 재구성: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8(4), 157-185. <http://doi.org/10.15284/kjhd.2021.28.4.157>
- 황매향, 여태철, 임현정, 김종민 (2022).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한국의 중2병 이미지 분석: 2010, 2015, 2019년 한국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83, 81-111. <https://doi.org/10.17253/swueri.2022.83..005>
- Arun, R., Suresh, V., Veni Madhava, C. E., & Murty, N. (2010). On finding the natural number of topics with latent dirichlet allocation: Some observation. In M. J. Zaki, J. K. Yu, B. Ravindran, & V. Pudi (Eds.), *Advances in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 (pp. 391-402). Berlin: Springer.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Jan), 993-1022.
- Cao, J., Xia, T., Li, J., Zhang, Y., & Tang, S. (2009). A density-based method for adaptive LDA model selection. *Neurocomputing*, 72(7-9), 1775-1781. <https://doi.org/10.1016/j.neucom.2008.06.011>
- Deveaud, R., Sanjuan, E., & Bellot, P. (2014). Accurate and effective latent concept modeling for adhoc information retrieval. *Document Numerique*, 17(1), 61-84. <https://doi.org/10.3166/dn.17.1.61-84>
- Graber, J. A. (2013). Pubertal timing and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in adolescence and beyond. *Hormones and Behavior*, 64(2), 262-269. <https://doi.org/10.1016/j.yhbeh.2013.04.003>
- Griffiths, T. L., & Steyvers, M. (2004). Finding scientific topics. *PNAS*, 101(1), 5228-5235. <https://doi.org/10.1073/pnas.0307752101>
- Jacobs, T., & Tschotschel, R. (2019). Topic models meet discourse analysis: A quantitative tool for a qualitative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22(5), 469-485. <https://doi.org/10.1080/13645579.2019.1576317>
- Hays, S. (199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opez-Miralles, M., Lacomba-Trejo, L., Valero-Moreno, S., Benavides, G., & Perez-Marin, M. (2022). Psychological aspects of pre-adolescents or adolescents with precocious puberty: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64, e61-e68. <https://doi.org/10.1016/j.pedn.2022.01.002>
- Lundin, L. (2020). Parental narratives online about ADHD. *Social Work in Mental Health*, 18(6), 684-703. <https://doi.org/10.1080/15332985.2020.1838030>
- Negriff, S., Susman, E. J., & Trickett, P. K. (2011). The developmental pathway from pubertal timing to delinquency and sexual activity from early to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 1343-1356. <https://doi.org/10.1007/s10964-010-9621-7>
- Prosperi, S., & Chiarelli, F. (2023). Early and precocious puber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rontiers in Endocrinology*, 13, 1107911. <https://doi.org/10.3389/fendo.2022.1107911>
- Schoelwer, M. J., Donahue, K. L., Bryk, K., Didrick, P., Berenbaum, S. A., & Eugster, E. A. (2015). Psychological assessment of mothers and their daughters at the time of diagnosis of precocious puberty. *International Journal of Pediatric Endocrinology*, 2015(5), 1-5. <https://doi.org/10.1186/s13633-015-0001-7>
- Suleiman, A. B., & Dahl, R. (2019).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the puberty years: Insights from developmental neuroscience. *Family Relations*, 68(3), 279-287. <https://doi.org/10.1111/fare.12360>
- Susman, E. J., Marceau, K., Dockray, S., & Ram, N. (2019). Interdisciplinary work is essential for research on puberty: Complexity and dynamism in act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9(1), 115-132. <https://doi.org/10.1111/jora.12420>
- Zimmer-Gembeck, M. J., Webb, H. J., Farrell, L. J., & Waters, A. M. (2018). Girls' and boys' trajectories of appearance anxiety from age 10 to 15 years are associated with earlier maturation and appearance-related teasing.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0(1), 337-350. <https://doi.org/10.1017/S0954579417000657>